

1970년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탄생과 과학기술의 문제

- 조세희 작품을 중심으로 -

최병구*

|| 차례 ||

- I. 머리말
- II. 성찰적 과학화와 '사랑'의 윤리
- III. 근대화의 시간, '비동시적 세계'의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8), 『시간여행』(1983), 『침묵의 뿌리』(1985)에 나타난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탄생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을 배경으로 선/악의 순환구조에 경제 문제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살펴본 작품이다. 노동자 계급을 '선'으로 자본가 계급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경계에 대한 성찰과 정동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은 『시간여행』에서 '신애'를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한편 조세희는 과학과 문학의 통합에 대한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으며, 기술의 속도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침묵의 뿌리』에서 사진기를 매개로 한 현실 개입으로 전환되었다. 작가는 기술문명의 도구인 사진기로 속도에 뒤처진 현장을 찍어 공유함으로써 현실에 개입하고자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와 기술이 교육, 생태, 정치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점이 중요한 성과이다.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시간여행』, 『침묵의 뿌리』, 과학기술, 경제, 경제적 인간

I. 머리말

작가 조세희의 작품 세계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리얼리즘과 환상성이다. 조세희의 대표작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8)에는 일반적인 리얼리즘의 문법과 일치하지 않는 환상적 요소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후속작 『시간여행』(1983)에서 발견되는 과거로의 여행이나 『침묵의 뿌리』(1985)의 사진첩 등은 조세희 작품의 ‘리얼’과 ‘환상’의 경계에 대한 물음을 지속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1970년대에는 조세희 문학에 대해 산업화의 소외계층에 대한 예리한 포착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소시민의 감수성을 가진 작가라는 비판적 판단이 공존했다.¹⁾ 『창작과 비평』의 민족문학론 시각에서 이루어진 비판과 『문학과 지성』 논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조세희 문학이 가지는 환상성에 대한 천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씨의 병」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인식이 가지는 의미도 분석되었다.²⁾ 『난

-
- 1) 긍정적 평가로는 김우창, 「산업 시대의 문학」, 『문학과 지성』, 1979 가을호; 김치수, 「산업사회에 있어서 소설의 변화」, 『문학과 지성』, 1979 가을호 등이 있으며, 비판적 평가로는 성민엽, 「이차원의 전망-조세희론」, 『한국문학의 현단계 II』, 창작과비평사, 1983; 황광수, 「노동문제의 소설적 표현」, 『한국문학의 현단계 IV』, 창작과비평사, 1985 등을 들 수 있다. 발표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70~80년대 양대 문학지였던 『문학과 지성』, 『창작과비평』의 이념지향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유철상,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과학인식-조세희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

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조세희 문학의 당대적 의미와 현재성을 조명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³⁾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세희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현재까지도 널리 읽히는 조세희의 대표작으로 수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1970년대의 대표작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산업구조가 변한 현재에도 꾸준히 읽히는 이유이다.⁴⁾ 많은 연구들이 밝혀놓은 문학사적 의미는 1970년대 대표작이라는 타이틀은 설명해줄 수 있지만, 산업 구조와 생산 양식이 크게 바뀐 현재에도 작품이 읽히는 이유를 말해주지는 못한다. 두 번째는 조세희 연구가 지나치게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분석에 치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시간여행』과 『침묵의 뿌리』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비해 작품의 밀도나 해석의 풍부함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전체의 연관성은 적극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후의 두 작품은 끊임없이 난장이와 그 주변 인물들을 호출하며 의미맥락을 확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문제의식은 세 편의 작품집을 총괄하며 규명되어야 한다.⁵⁾

학연구』 18, 현대문학회, 2005. 조세희 문학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과학이라는 소재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과학적 인식의 구체성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권성우 외, 『침묵과 사랑-『난쏘공』 30주년 기념문집』, 이성과 힘, 2008.

4)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8년 6월 초판본이 나오고, 2007년 9월 백만부 발간을 달성했다. 물론 정전(正典)의 반열에 오른 소설집이 청소년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읽혀진다는 사실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시대를 초월해서 꾸준히 독자들에게 읽혀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독서의 계기와 수용과정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조세희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과학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조세희 문학에서 ‘과학’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과학은 환상의 문제와 결부되어 설명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거나 이론적으로만 접근되었다. 조세희 문학에서 과학기술이 가지는 함의가 파악될 때, 그의 작품을 구획하는 ‘사랑’, ‘부끄러움’ 등과 같은 감정이 가지는 문화정치적 의미가 새롭게 부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에서 과학기술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박정희 정권에서 과학기술은 ‘조국 근대화’로 명명된 발전 기획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중공업의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조직이 제도화되면서, 발전민족주의는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이러한 시각이 당대의 저항적 민족주의 세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저항적 민족주의 진영의 논의가 민족의 과학기술 역량 증대라는 명제로 수렴되면서,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의미망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다.⁶⁾ 요컨대 1970년대 좌/우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를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이에 대한 저항이라

-
- 5) 이러한 점에서 조세희 작품 전체를 살펴보면 산업사회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았던 조세희가 어떻게 파국을 맞게 되는지를 검토한 정주아의 연구가 주목된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조세희 작품 세계의 일관된 문제의식과 서사 문법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주아, 「조세희 문학을 통해 본 1970년대 산업사회와 ‘희망’의 문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을 참고할 것.
- 6) 박정희 정권에서 과학기술이 인식되는 공통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김상현, 「박정희 정권 시기 저항 세력의 사회기술적 상상」, 『‘과학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서』, 역사비평사, 2018을 참고.

는 구도가 아니라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지향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읽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화/민주화의 구도가 아니라 현재의 기원으로서 1970년대 자본주의 근대의 형성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⁷⁾ 저항적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창작과 비평』이 “저항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자유의 부재, 경제성장이 초래하는 불평등, 식민지 수탈 위에 세워진 제국주의 같은 것일 뿐, 결국 국가권력이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근대 민족국가 기획과 꿈을 공유하고 있었다.”⁸⁾는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배/저항’의 구도는 ‘자본주의 근대’의 민낯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문제의 틀을 바꿔서 자본주의 근대 구축에 공모한 지배 권력과 저항 집단을 한 축으로 세우고, 그들이 공모하는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과학기술’ 개념으로 문제 삼고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1970년대 호모 이코노미쿠스 탄생에 공모한 독재 정권과 민족주의 세력이 인식한 과학기술이란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렇게 두 집단의 공통분모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과학화의 방법론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질문해야 한다. 그 시작은 합리성과 가치중립성으로 무장한 과학기술의 성격을 해체하는 것이다. 울리히 벡이 근대를 ‘위험사회’로 파악하며 “과학적 실천과 공공영역의 관계 내에서 일차적 과학화와 성찰적 과학화라는 두 가지 위상을 구분할 수 있다.”⁹⁾는

7)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여기서 저자들은 ‘산업화 대 민주화’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 삶을 근저에서 기술하는 문제에 1970년대와 오늘 사이의 ‘연속면’이 있다. 바로 경제와 자본주의의 문제다. 이는 곧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p.27.)라고 언급한바 있다.

8) 송은영, 「민족문학이라는 쌍생아」, 『비평 현장과 인문학 편성의 풍경들-1970년대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8, p.241.

9) 울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2006, p.248.

명제를 신뢰한다면, 과학의 신화를 벗겨내고 과학의 생산물(생태 환경, 교육 문화 등)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는 성찰적 과학화의 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경제성장으로 수렴된 일차적 과학화를 질문하는 성찰적 과학화의 시선이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희 작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희 작품은 과학기술의 작동 방식에 대한 끈질긴 탐구를 통해 성찰적 과학화의 입장을 드러내며, 권력의 힘이 인간의 신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1990년대 후반으로 이동하며 권력이 인간을 억압하는 방식이 바뀌었지만, 조세희의 시선은 한결같이 권력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놓여있었다. 1990년대 중반 조세희는 『파괴와 거짓 희망, 모멸의 시대』(『문학과 사회』, 1996년 가을호)라는 산문을 썼다. 여기서 작가는 난장이 연작을 쓰던 시기를 회고하며 쓰기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보여주었으며, 이 글은 2000년에 재발간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서문으로 삼입되었다.

강압 통치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만 있으면 자신과 가족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응과 무저항을 안전한 생활 방식으로 터득한 사람들에게 고문이나 투옥은 밤잠을 빼앗아갈 정도의 공포가 이미 아니었다. 육십년대에 새파랗게 젊었던 우리 세대는 서른 몇 살이 되어 바로 윗세대들과 똑같이 '실패자'가 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탄압은 정치와 경제 양면으로 가해졌다. 자세히 보면 지금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만, 그때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악이 내놓고 '선'을 가장하는 것이었다. 악이 자선이 되고 희망이 되고 진실이 되고, 또 정의가 되었다.¹⁰⁾

10)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17, pp.8-9.

인용문에서 조세희는 고문이나 투옥이 아니라 순응과 무저항을 더 큰 공포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정치와 경제 양면”으로 가해지는 것으로 ‘악’이 ‘선’으로 변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의 문제의식이지만, 박정희 정권의 강압 통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순응의 기제로서 경제에 주목했던 1970년대의 문제의식과 동일한 것이다. 선/악의 구분이 분명하던 1970년대 노동소설을 떠올린다면, 모호한 현실 인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세희의 이러한 인식은 권력의 미시적 작용에 대한 통찰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자기 통치 방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조세희 작품은 신자유주의의 통치방식을 선취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읽히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세희의作品集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8), 『시간여행』(1983), 『침묵의 뿌리』(1985)를 살펴본다. 조세희가 발견한 선/악의 순환 구조는 과학기술과 경제를 축으로 유동하는 정동의 흐름과 일치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열린 과정으로서 포착하고자 했던 조세희의 문제의식을 세作品集을 총괄하며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신체가 일상화 된 현재를 성찰할 수 있는 기원으로서 1970년대 문학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II. 성찰적 과학화와 ‘사랑’의 윤리

1.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인식론과 두 개의 과학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난장이 가족을 중심으로 구

성된 12개 단편 모음집이다. 각각의 작품이 완결된 서사를 이루지만, 전체 12편의 구성을 통해 각각의 인물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작품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재개발과 산업화라는 1970년대 경제 성장의 논리에 대한 성찰적 시각이다. 작가는 주로 난장이 가족을 통해 과학기술의 산물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각을 드러내고, 그것의 위험성을 알린다.

「기계도시」에서는 공업 도시 은강시를 공장의 매연과 유독 가스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장소로 묘사한다. 1970년대 중공업 도시를 연상시키는 은강시의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기계들은 정밀한 것이었지만 그 사회는 이상한 습성·감시·비능률·위험들로 가득 차 있었다.”¹¹⁾ 작가는 노동자들은 오염된 도시에서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지만, 정작 경영자들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강조하기도 한다. 난장이 가족의 삼남매는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자로 훈련 받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수는 “기술의 진보나 변혁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면 나는 좀더 빨리 그만두었을 것이다.”¹²⁾라고 생각한다. 기술의 발전에 어떤 흥미를 느낀 것이다.

조세희가 과학기술의 현실(환경오염)에 주목¹³⁾하면서 기술의 발전이 주는 매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후자가 자본주의 근대를 이루려는 계몽의 시선이라면 전자는 그 이면에 대한 인식이다. 아마 영수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과학기술이 주는 매력만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공업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자기의 선반을 가질 수 없

11) 위의 책, p.190.

12) 위의 책, p.200.

13) 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김춘규, 「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사회생태학적 담론에 관한 고찰」, 『한민족어문학』 제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를 참조.

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자본주의 근대 사회가 내장한 배제의 원칙이다. 자본주의 근대를 추동한 과학기술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난장이와 같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 근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철저히 숨긴다. 만인은 자본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은 기술이 모두에게 공평할 것이라는 판단으로부터 생겨난다.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토대로 자본주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마련된 것이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인식론이 탄생한 것이다.

영수가 은강의 경영자를 죽이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이러한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인식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훈의 숙부와 아버지는 “경공업 분야에 머물러 있는 할아버지의 기업 그룹을, 머리와 지원만으로, 기계·철강·전자·조선·건설·자동차·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망라한 체제로 끌어올렸다. 말년의 할아버지는 그 무서운 성장 속도를 대하고 현기증이 난다고 말했다.”¹⁴⁾ 1970년대 경제의 고도성장은 국내시장에 자본이 확충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그 자본이 아파트로 몰리며 1970년대 후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경훈은 영수를 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그 작은 몸 속에 모진 생각들만 처넣고 사는, 이런 부류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경영·경쟁·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저희들은 무서운 독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단정했다. 그 중독 독물이 설혹 가난이라 하고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

14) 조세희, 앞의 책, pp.272-273.

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저희 자유 의사에 따라 은강 공장에 들어가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다.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도 나아졌다. 그런데도 썩그린 얼굴을 펴본 적이 없다. 머릿속에는 소위 의미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 사회가 들어 있었다.¹⁵⁾

경훈은 영수를 비롯한 은강 노동자들이 자유의지로 일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으며, 함께 잘사는 사회를 “불가능한 이상 사회”라고 표현한다. 경훈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한 인물이며, 그런 만큼 정당한 것이다. 그에게 자본의 독점과 그에 따른 소외와 배제의 논리를 사고할 여력은 없었다. 알다시피 이러한 사고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된 신자유주의 체제하 개인들의 인식론이다. 즉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조세희가 문제 삼은 것은 조국 근대화의 비민주적 방법이 아니라 근대화의 논리 자체인 것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 자본의 작동 방식과 이로 인한 인간의 욕망 형성 메커니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자본 축적과 욕망의 문제는 화폐의 소유를 위한 경쟁의 과정에서 드러난다.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한 경쟁은 입시와 투기로 이어졌다. 1970년대 대입 입시는 상징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부동산 투기는 중산층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점차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가 1970년대이다.¹⁶⁾

조세희는 자본 축적의 변화와 그 속에서 재편되는 주체의 모습을 두 가지 과학의 모습을 소재로 한 「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씨의 병」을 통해

15) 위의 책, p.290.

16) 권보드래 외, 앞의 책, pp.202-215.

인식하고 비판한다. 먼저 「피비우스의 띠」에는 수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골똥 청소를 하고 내려온 두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피비우스의 띠’를 소개하는 이야기에, 아파트 입주권을 되찾기 위한 앓은뱅이, 꼽추의 서사가 섞여 있다. 앓은뱅이와 꼽추는 38만원에 팔 수 있었던 아파트 입주권을 16만원에 사간 남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20만원을 빼앗아 온다. 하지만 꼽추는 처음부터 이 일에 가담하는 것을 망설였다. 그는 더 이상 앓은뱅이와 함께 일하지 않고 약장사를 따라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자네의 마음이야”¹⁷⁾라고 덧붙였다.¹⁸⁾ 투기를 위해 입주권을 산 남자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해야 정상일 두 사람이 연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적과 동지의 구분이 자본주의 근대 사회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인식이다. 노동자/자본가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자본주의 근대 사회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본화될 수 있다는 명제를 보여준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꼽추는 앓은뱅이가 이미 자본주의적 관계 맺음을 한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¹⁹⁾ 이런 맥락에서 입주권을 사간 남자와 이들의 차이는 흐릿해진다. 처음에는 안과 밖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없는 ‘피비우스의 띠’가 되고 만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현상을 성찰하고 재구축하기 위해서도 과학의 도움이 필요

17) 조세희, 앞의 책, p.28.

18) 물론 「에펠로그」에는 약장사를 함께 따라 간 두 사람과 도망가 버린 약장수가 모습이 드러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꼽추는 앓은뱅이가 마음을 무섭다고 표현한다. 즉 꼽추가 경계하는 앓은뱅이의 마음이 함의하는 경제적 맥락이 중요한 것이다.

19) 가령 앓은뱅이는 돈을 가지고 삼양동이나 거여동으로 가자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갈현동에 갔었던 일 생각나? 몇 방울 튀겼었는지 벌써 잊었나? 밤 아홉시까지 계속 돌려댔었잖아. 그들은 강냉이를 먹기 위해 튀기러 오는 게 아냐. 옛날 생각이 나서 아이들을 앞세우고 올 뿐야. 그런 델 찾아다니면 돼. 우리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 여편네가 입을 벌릴 정도의 돈을 쏟아 놓을 수가 있다가.” (조세희, 앞의 책, p.28).

하다. 「클라인씨의 병」에는 난장이가 죽은 뒤 은강에서 살고 있는 삼남매와 어머니가 등장한다. 영수는 과학자에게 “기술과학의 발전이 숙련 노동자를 실직”시켰으며, “노동자의 손해는 경영주의 이익”이고, “부의 증가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의 증가와 비례해왔다는 역사”²⁰⁾를 배웠다. 그 무렵 영수를 찾아 온 지섭은 노동 이론 공부를 그만하고 현장에 있으라는 말을 한다. 과학자가 영수에게 기술의 발전과 노동자의 소외를 알려주었다면, 지섭은 노동자 주체로서의 운동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영수는 과학자를 전처럼 만나지 못한다. 지섭이 강조한 운동성이 계속 땀들었기 때문이다. 영수는 회사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배치하는 것을 보며 “기원·지원·무지·잔인·행운·특혜 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²¹⁾를 참을 수 없게 된다. 자본가들의 행동에 분노하게 된 영수는 과학자/노동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클라인씨의 병’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이 병에서는 안이 곧 밖이고 밖이 곧 안입니다.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부를 막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는 갇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벽만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이 세계에서는 갇혔다는 그 자체가 착각예요.”²²⁾

여기서 안과 밖은 만날 수 없는 세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순환구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영수가 과학자/노동자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두 세계를 순환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순환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과학이다. 과학자가 영수에게 준 지식을 자

20) 위의 책, p.244.

21) 위의 책, p.262.

22) 위의 책, 위의 쪽.

기 내면과 결합시키면서 영수는 ‘분노’를 느끼고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설에서 실천의 방법은 살인이었다. 자기의 신체에 육박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합법의 영역에서 활동도 불가능할 때, 최후로 영수가 택한 것은 적의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악의 순환구조를 정지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어떤 진실이 환기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 과학을 경제가 아니라 자기의 내면과 결합할 수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 ‘투기사회’에서 사랑으로 감응하기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탄생의 맥락을 부동산 투기라는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1970년대 유신과 자본의 공모는 1970년대 초반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이었다. 1960년대부터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아파트 건설은 국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 마포 아파트 단지 개발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주택사업으로 시행된 것이지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등의 기술적 문제를 보였고 당시 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했다. 1976년 8월 정부는 여의도와 잠실, 반포, 압구정 등 강남지역 대부분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했으며, 1978년을 기점으로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누르고 더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주택이 되었다.²³⁾ 1970년대에 강남의 땅값은 엄청나게 폭등했다.²⁴⁾ 1970년대 후반에 아파트는 신식거주 공간이자 투기의 대상으

23) 박철수, 『아파트』, 마티, 2013, 4장-5장 논의를 참고.

24) “1963년 당시 땅값 수준(지수)을 100이라 했을 때, 1970년 강남구 학동의 땅값은 2,000, 압구정동은 2,500, 신사동은 5,000이 되었다. 7년 만에 각각 20배, 25배, 50배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에 중구 신당동과 용산구 후암동은 각각 10배, 7.5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 1979년이 되면 아예 단위가 달라졌다. 학동의 땅값 지수는 13만, 압구정동 8만 9,000, 신사동 10만이었다. 이에 따르면, 1963~1979년 16년

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묘사된 당시 강남의 풍경은 다음과 같았다.

그의 아파트는 영동에 있었다. 사월도 영동에 있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주택에 관한 신문 기사를 오려 스크랩북에 옮겨붙였다. 날마다 같은 일만 했다. 주택에 관한 기사가 없을 때는 일반 기사를 읽으며 소일했다. 그의 광고도 신문에 날마다 났다. '잠실은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잠실 아파트에 대해 상담하실 분은 지금 곧 전화를 하세요. 은아는 당신의 성실한 부동산 안내자입니다. -은아부동산.' 주택 분양 광고도 났다. '신천호대교, 잠실지구, 강남 1로에 붙은 급속도 발전 지역. 꿈이 깃들인 주택을 영가분양중이오니 이 기회를 이용하십시오.²⁵⁾

인용문은 난장이 가족에게 분양권을 사간 남자의 집에 가게 된 영희가 경험한 일이다. 남자는 영희를 성적 대상으로 삼기 위해 집에 들였다. 그에게 영희는 신문에 광고되는 주택 상품과 같은 존재이다. 남자는 분양권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아 자산을 불려가고, 영희를 구입해서 자신의 성욕을 해결한다. 자본을 소유한 주체가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영희가 남자의 집에서 가져온 자기 집의 분양권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비장감을 준다. 난장이 가족에게 집은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 보금자리이지만 남자에게 집이란 자본 축적을 위한 교환 대상일 뿐이었으며, 결국 난장이 가족은 영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을 빼앗긴다. 교환가치로 주택을 대하는 계급이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난장이의 죽음을 '달나라'에 간 것으로 묘사한다. 조세희

간 학동의 땅값은 무려 1천 333배,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의 경우 1천 배가 올랐다.”(한중수, 강희용, 『강남의 탄생』, 미지북스, 2018, p.214).

25) 조세희, 앞의 책, p.130.

는 왜 난장이의 죽음을 ‘달나라’라는 환상적인 언어로 표현했을까? 일단 작가가 강조한 자본주의 근대란 자본의 이동을 쫓아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사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본 축적이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1970년대에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인식지평을 결정했다. 자본 획득을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도 선이라는 비윤리적 태도가 확립된 것이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는 아버지가 꿈꾸는 사랑의 세계와 대비되는 은강 지역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노동자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준다. 영수의 아버지는 “달에 가서 천문대 일을 보겠다는 것”이 꿈이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²⁶⁾ 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았다.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이라는 기반을 주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사랑에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우리 네 식구가 살기 위해 은강시는 머릿속 이상 사회와 너무나 달랐다. 우리는 참고 살았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찾아 은강에 온 것이 아니다. 공장 주변의 생물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나는 목격하고는 했다. 은강 공장창과 합성 고무 공장 앞을 지날 때 나는 땅만 보고 걸었다. 공장을 끼고 흐르는 작은 내를 건널 때는 숨을 쉬지 않았다. 시커먼 폐수·폐유가 그냥 흘렀다.²⁷⁾

조세희는 은강 노동자 공단을 묘사하며 생태 문제에 주목한다. 생태의 문제야말로 기술 발전의 산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26) 위의 책, p.213.

27) 위의 책, p.214.

때문이다. 1970년대 저항적 민족주의의 자본의 불평등 문제가 자본 축적이라는 전제는 승인하는 것이라면, 환경 문제는 자본 축적 자체를 겨냥한 문제제기이다. 그 만큼 조세희는 자본주의 근대의 본질적인 측면을 파고들 어간 것이다. 가령 “은강 공업 지역이 저기압권에 들면 여러 공장에서 뿜어내는 유독 가스가 지상으로 깔리며 대기를 오염시켰다. 어머니는 은강에 온 후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호흡 장애·기침·구토 증상도 자주 일으켰다.”²⁸⁾라며, 환경오염과 신체의 고통을 반복하는 대목은 기술이 경제의 문제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알다시피 토지, 공기, 물 등과 같은 생태환경은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다.²⁹⁾ 인류의 진화 과정은 공통적인 것, 즉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사랑의 세계를 공통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면, 조세희는 공통적인 것이 위협당하는 현실의 곳곳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환상성은 아버지 김불이가 꿈꾸는 ‘사랑’³⁰⁾의 세계와 맞닿는 것으로, 집을 교환가치로 취급한 남자와는 다른 정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에필로그」에서 수학 선생은 우주여행을 떠난다고 학생들에게 말한다. “우주인이나 비행접시의 목격 현상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순간에 나타나는 자기 방어의 결과”³¹⁾라

28) 위의 책, p.218.

29) 공통적인 것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네그리 외, 정남영 외 옮김, 『공통체』, 사월의 책, 2014를 참조.

30) 바디유는 사랑을 가족 이기주의로 수렴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차이의 지점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재정의한다. 사랑은 타인과의 차이를 인지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포섭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그런 면에서 사랑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가 행동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기도 하다(알랭 바디우, 조재룡 옮김, 『사랑예찬』, 길, 2011).

31) 조세희, 앞의 책, p.318.

는 학생의 언급에, 우주인과 혹성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긴 설명은 필요 없다고 한다. 수학 선생이 교단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 우주는 어디일까? 「우주여행」에서 윤호와 지섭이 가고자 한 세계도 달나라였다. 지섭의 시선에서 볼 때 개발 논리에서 떨어져 나온 난장이와 아버지의 강압으로 A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윤호는 현실의 논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들이 가고자 한 우주란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사랑의 세계이다. 그 세계는 난장이의 죽음이 암시하듯 현실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결국 지구/우주의 삶이란 주체의 내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구의 삶이 부동산 투기와 같은 자본 축적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면, 우주에서의 삶이란 ‘달나라’, ‘사랑’이라는 어휘로 설명되는 세계로,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결성을 도모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영수의 삶이다. 영수가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를 한 것은 자본의 논리를 따른 것이 ‘선’한 행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도덕적 올바름의 기준이 얼마나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느냐에 놓이게 될 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를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자본 축적의 삶에 익숙한 주체는 노동하는 신체를 믿었던 난장이를 지구 바깥으로 쫓아냈다. 「에필로그」에서 수학 선생이 가고자 한 우주여행이란 자기 신체의 정직함을 신뢰한 난장이의 세계, 동료들에게 기쁨, 평화, 행복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영수의 정동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을 의미한다.

Ⅲ. 근대화의 시간, ‘비동시적 세계’의 의미

1. 진보의 윤리, 일상의 금융화 - 『시간여행』(1983)

조세희의 후속작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드러난 문제의식이 변주되고 구체화된 모습이다. 그 모습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질문은 바로 시간성을 전제한 진보에 대한 물음이다.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진보는 과학과 경제라는 무기를 통해 가속화된다. 그 속도감은 자본 증식을 위한 부도덕을 도덕적인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³²⁾

소설집 『시간여행』은 단편소설 혹은 콩트 형식의 짧은 이야기 20여 편과 중편소설 「시간여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작가는 부끄러움, 분노 등과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제시한다. 「어린왕자」에서는 가난한 국민들의 사진을 찍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렉스포드 지이 터크웰을 소개하며, 그가 “양심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고통 받는 국민의 가난을 드러내 고통 덜 받는 다른 반수에게 제시”³³⁾했다고 한다. 「부끄러움」에서 조세희는 난장이 이야기를 쓴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은 쓰지 않았지만 나는 작가였다. 이 이상 슬픈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작가로서 생각했다. 마이너스는 신이 인정했다. 그리고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달 수도 없는 것이다. 어른들은 그것을 달아 나타내기 위해 지수화의 기술 개발을 꾀했고 결국은 마음의 상태를 몸무게처럼 달아

32) 가령 조세희는 『침묵의 뿌리』에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후속편에 해당하는 「1979년의 저녁밥」을 수록했다. 여기서 경훈의 “큰 아버지는 윤리·도덕·질서·책임 같은 것들을 단숨에 모든 생산행위의 적으로 몰아버렸다.”(조세희, 『침묵의 뿌리』, 열화당, 1985, p.103).

33) 조세희, 「어린왕자」, 『시간여행』, 1983, p.67. 미국의 사진작가를 소개하는 「어린왕자」 에피소드는 『침묵의 뿌리』에도 들어가 있다.

킬로그램으로 적고 있다. 그래서 난장이의 이야기를 썼다. 난장이의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몇 번이나 울었다. 그렇게 쓴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꾸며져 나왔다.³⁴⁾

조세희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행복이라는 감정을 수치화하려는 어른들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썼다고 말한다. 기술의 발전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지표를 마련했으나, 조세희는 그러한 행위가 난장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목격하고 슬퍼한 것이다. 여기서 발견되는 부끄러움과 슬픔, 그리고 행복의 정서는 과학기술의 논리와 충돌하고 때로는 겹쳐지기도 한다. 조세희는 “문학이나 과학이나 명백한 개체로 출발”했지만, 두 가지는 “서로 교감하며 하나로 통일되는 한 영혼의 두 개의 육신”³⁵⁾이라고 쓴바 있다.

조세희 말처럼 문학과 과학이 각각의 육체를 갖고 인간의 정신으로 통합된다고 할 때, 과학기술은 수치화의 육체를 가지고 인간을 정동한다. 하지만 문학의 육체인 정념은 수치화의 논리에 따라 정동하는 주체를 반성하게 만들고 정동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한다.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신체는 투쟁의 공간이다. 경제와 연합한 기술의 수치화 논리가 하나의 힘이라면 문학의 정념이 또 다른 힘이다. 두 힘은 신체에서 교호하며 주체의 이동을 결정한다.³⁶⁾ 조세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의 관계를 파

34) 조세희, 「부끄러움」, 위의 책, p.142.

35) 조세희, 「과학자」, 위의 책, p.154.

36) 브라이언 마수미는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정동을 동원하며 지배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의 구조가 아니라 ‘사회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들에 의해 형성되고 이동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를 때 정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동원되기도 하고, 반대로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즉 정동은 사회의 이동을 촉진하는 새로운 형태들과 그것이 육화된 자기의 신체를 동시에 사고하는 매개이다. 이에 대

악하고 자기의 정념을 글쓰기에 투여했다.

「시간여행」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난장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나이에게 칼을 휘두르며 공감을 표시했던 신에 가족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육교 위에서」에서 변해버린 동생의 친구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할 만큼 강직한 의지의 소유자였다.

그 친구는 냉·난방 시설을 갖춘 큰 집에 없는 게 없이 해놓고 산다. 몇 개의 낙원 중의 하나를 보는 것 같다. 친구의 낙원은 언제나 따뜻했다. 비싼 그림도 사다 걸었다. 곧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승용차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에는 행복이라는 말을 빼어놓는다. 아이들은 너무 빨리 늙어 죽는다. 마비 속에서, 신에는 육교의 층계를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동생의 친구는 정말 그가 술집에서 말했던 대로 용서하지 않았다.³⁷⁾

신에는 동생의 친구가 졸업 후 변한 모습을 보고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 동생 친구는 졸업 후에 대학시절 맞서 싸웠던 교수와 함께 일하며 물질적 행복을 얻었다. 신에는 이러한 동생 친구의 변화를 “빨리 늙어 죽는다.”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시간여행」에서 신에는 “한강이 내다뵈는 땅에 지어 놓은 쉼 두 평짜리” 아파트에 이사했으며, 냉방기를 사다 놓을 정도로 경제적 풍요를 이룩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부터 아파트 대형화와 고급화 전략을 추진했다.³⁸⁾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경제부처는 신자

한 자세한 내용은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3장 논의를 참고할 것.

37) 조세희, 앞의 책, 1983, p.158.

38) 소형 평수 중심에서 대형 평수 아파트로 1970년대 정부의 정책이 변경된 것은 1960년대 말부터 고조된 북한의 위협과 이에 따른 정치적 긴장감, 그리고 1971년 8월 광주 대단지 주민 소요 사태 등 사회적 불안요인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산층에게 아파트라는 상품을 유통시키면서 국가 정책에 동화시키려는 목적이다. 건설사와

유주의자들이 장악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과 차별화하기 위해 시장화와 민영화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관료들을 채용한 것이다. 그 결과 1982년에 최초로 한 자릿수 물가 상승을 이루었으며, GDP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³⁹⁾ 신애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편승해 중산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이룬 것이다.

「시간여행」은 중산층에 편입한 신애가 자신의 과거를 딸 영희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신애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딸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으며, 4·19와 5·16, 6·25, 만주사변 등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영희의 반사 방향을 바꾸”⁴⁰⁾기 위해, 즉 정동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세희가 「시간여행」에서 주목하는 것은 눈물이다. 6·25 당시, 신애는 기차 안에서 불쌍한 동포를 위한 모금 운동을 했다. 아무런 호응이 없을 때, 소매치기 조직이 특별 객실 승객들에게서 훔친 돈을 신애와 친구들에게 기부한다. 그 순간 특별 객실 손님이 자기의 돈을 찾으러 오는데, 그들은 불행과 멀리 떨어져 자기의 가족과 행복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일반/특별 객실의 공간이 상징하는 계급의 차이가, 일반 객실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특별 객실 사람들은 돈을 포기한다. 그런데 작가는 일반 객실 사람들의 분노가 ‘눈물’ 때문에 사라졌다고 한다. 객실 승객들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슬픔과 비애의 정서가 분노를 지우고 만 것이다. 그래서 신애는 둥그런 눈물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눈물을 조직하려고 애쓴다. ‘각

국가의 결탁으로 시행된 아파트 분양은 중산층의 상승 욕구를 자극하며 현재에 이르렀다(박철수, 앞의 책, 4~5장 참조).

39)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3, 4장 논의를 참조.

40) 조세희, 앞의 책, 1983, p.187.

성'하지 못하는 눈물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눈물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런 그녀가 시간이 지나 현재에 이르러 딸의 분노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녀의 삶이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지나 공포와 굴종이 익숙한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⁴¹⁾ 신애는 딸의 모습에서 정의감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겹쳐 읽고, 행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정념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딸의 독서 노트에서 읽은 수많은 구절들은 자기가 과거에 읽었던 것이다. 신애는 자기 방어를 위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굴종하게 되는 “윤리적 의미의 공포”⁴²⁾를 사람들에게서 읽어내고, 거기에 동조한 것이다.

조세희의 시각이 압축되어 있는 윤리적 공포는 자본의 이동에 따른 주체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현재의 용어로 말하자면 ‘일상의 금융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상의 금융화란 인구의 대부분이 투자자 주체로 전환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일상의 금융화가 진행되면, 과거와 같이 공장이나 회사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같은 일상의 공간이 자본 창출의 근원이 된다.⁴³⁾ 더 이상 공적/사적 공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개인의 일상적 삶이 투자를 위한 설계로 꾸려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시간여행』에서 신애의 변화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배경이다.

41) 영희가 읽고 있는 책의 목록은 신애가 과거에 접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 중 하나인 체코 지식인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사람들은 현재 행해지고 있거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위협에 대하여 불안해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이 위협이 마치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영속적 요소이기라도 한 듯이 이에 점점 적응해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어를 위한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으로서 더욱더 자연스럽게 교묘한 여러 가지 형태의 표면적인 굴종 방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조세희, 위의 책, p.243).

42) 위의 책, p.243.

43) 일상의 금융화와 투자자 주체의 탄생에 대해서는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4, pp.173-175.

그 시작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투기업자들의 모습이 신애와 같은 사람들로까지 확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애가 “국경”을 넘어서 이사 간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당대 대중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이는 곧 ‘노동의 가치’를 믿었던 난장이의 삶에서 ‘가상의 경제’에 맞추어 자기의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 보편적 선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⁴⁴⁾ 「503호 남자의 희망 공장」은 아파트 3호 라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품이다. 그런데 503호에 사는 남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 1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의 직업은 부동산 소개업이다. “빈 아파트들이 곧장 집 없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세상은 그에게 암흑이다.”⁴⁵⁾ 그는 1203호를 처삼촌의 이름을 잡아 놓았다. “그의 처삼촌은 여섯 식구의 40일 생활비를 모두 쓸어넣어야 안다미로 아파트의 한달 관리비를 물까말까한 사람이다.” 103호 남자가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은 그의 처삼촌과 같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3호 라인에서 503호 남자를 제외한 다수가 103호 남자의 삶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신애가 진입한 새로운 세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문제인 것은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바깥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무력감이 대물림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더욱 공고하게 구축된다.

44)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물질적 욕망을 다룬 「주말논장」(1973), 아파트에서 서로 다투는 주인공을 다룬 「닭은 방들」(1974) 등 박완서의 소설들은 이점을 적절히 보여준다. 박완서의 소설이 금융화된 주체의 욕망을 미시적으로 묘사한다면, 조세희는 기술,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를 다룬다는 차이를 보인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부동산 투기와 금융화된 주체의 양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다.

45) 조세희, 앞의 책, 1983, p.82.

내가 남자친구나 선배와 마음 합쳐 트집 잡는 역사는 내가 모금함 들고 다닌 것과 상관없이, 결코 그 정체를 밝혀 본 적 없는 캄캄한 사나이들에게 수모 받은 아픔과 상관없이, 분만실에서 괴로워한 것과 상관없이, 그 밤에 아버지가 총쏘는 사람들에게 소리친 것과 상관 없이, 분만실에서 괴로워한 것과 상관없이, 그 밤에 아버지가 총쏘는 사람들에게 소리친 것과 상관없이, 남의 무기가 파헤쳐 놓은 땅에 씨 뿌린 아버지의 눈물나는 파종과 상관 없이, 할아버지의 반복과 상관없이, 그 어른이 무셨던 물푸레나무와 상관 없이 제 갈길을 갔다.⁴⁶⁾

인용문은 「시간여행」의 마지막에 신애가 하는 말이다. 한 마디로 역사는 누구의 방해에도 결국 제 갈 길을 간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 갈 길이란 1970년대에 시작해서 2000년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신자유주의 경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에서 신애는 과거에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삶에, 행복해지기 위해 편입했으며, 과거를 돌아보며 어쩔 수 없다는 자조를 내뱉고 있다. 하지만 조세희는 「시간여행」의 마지막을 “행복동 땅 집에서 옮겨 온 것들이 철망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로 적었다. 신애가 난장이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업자들에게 휘둘렀던 칼을 남편이 가지고 국경을 넘어 온 것이다. 대장장이의 수많은 담금질이 새겨져 있는 칼은 노동의 가치와 윤리적 올바름을 상징한다.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침묵의 뿌리』이다.⁴⁷⁾

46) 위의 책, p.247.

47) 우찬제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시간여행』에서 칼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여 “「시간여행」은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억압의 시간의식을 환기시켜주는 소설” 이자, “그 시간의식에 지나치게 억압됨으로 해서 현실에 대한 치열한 해석과 현실과의 싸움 이전에 환상축으로 지레 빠져들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우찬제, 「분노와 사랑의 피비우스 환상곡, 혹은 분배의 경제시학」, 『작가세계』 제2집, 1990, p.84.) 칼날이 상기하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이지만, 문제는 신애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와 그 속에서

2. ‘성찰적 과학’의 시선에서 이루어진 현실개입

- 『침묵의 뿌리』(1985)

『침묵의 뿌리』는 성찰적 과학화의 시도로 ‘사북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주목한 작품집이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광주대단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 작품이 추상도가 높았던 반면, 『침묵의 뿌리』는 사북 사건에 대한 사진과 공판기록 등이 수록되어 실제 사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⁴⁸⁾

조세희는 『침묵의 뿌리』에서도 어린 왕자 이야기를 통해 미국의 경제학자 랭포트 지이 터크웰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세희는 터크웰의 사진이 가난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부유한 사람들의 행복이 몇몇한 것이 못 되며, 어떤 행복은 바로 최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 준”⁴⁹⁾ 것, 분노가 아니라 대중의 양심을 일깨웠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 질문한다.

성공한 세계쪽 사람들은 바로 ‘운명이 자연적인 과정에 놓이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럴 때 내가 떠올리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유행했던 ‘비동시적 세계’라는 말이다. 인류는 지구라는 하나의 별 속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은 동시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기술이다. 우리의 비동시적 세계는 기술에 있어서 초현대적인 것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지적을 나 개인에게 적용시켜 말하면 나

환상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이다. 특히 신애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48) 사북 사건과 『침묵의 뿌리』에 대해서는 서은주, 「노동(자)의 재현과 고통의 재소유-조세희 『침묵의 뿌리』에 담긴 ‘사북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를 참고.

49) 조세희, 앞의 책, 1985, p.28.

는 19세기에서 방금 도착한 캄캄한 문맹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⁵⁰⁾

보통 근대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각기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동시성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조세희는 동시적인지 않은 사회로 근대를 인식한다. 기술 문명의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술 문명의 밝은 쪽만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문맹자로 차칭하며 “‘비동시적 세계’에 주저앉아 현대의 우리 통신매체가 목살하는 소식을 구식 수단을 이용해 띄우기”⁵¹⁾로 결심한다.

이를 통해 조세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정념을 사유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 발전의 신화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⁵²⁾ “생활의 리듬을 기계에 맞추고 생각이나 감정을 기계에 빼앗긴 젊은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⁵³⁾라며 산업화 시대 공장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을 설명하고 대목이 증명하는 것처럼, 작가는 산업화 시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사고를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제시한다.

이런 세계관의 핵심에는 자본의 증식과 물질적 행복을 선으로 인식하는

50) 위의 책, pp.13-14.

51) 위의 책, p.16.

52) 가령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러한 지점을 단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다음 해인 1977년 우리 땅 어느 그룹 회장은 78억이나 되는 개인소득을 올렸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 대국이 되어버린 한 나라, 즉 일본의 고액소득 1위인 자보다 1.8배 많은 것이었다. 78년도에 우리 그 개인의 소득은 세 배로 뛰어 2백 40억원을 기록했다. 미쳤구나.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건 경제가 아니다! 이런 일을 도대체 무엇으로 정당화시킬 것인가. 물론 그 혼자만의 힘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면 그래도 할말이 적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수들이 그를 도와준 이상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위의 책, p.62).

53) 위의 책, p.60.

삶이 자리 잡고 있다. 『시간여행』이 신애와 그녀의 딸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침묵의 뿌리』에서는 시민 가장의 이야기를 쓴 「폴밭에서」를 통해 드러낸다. 이 작품의 주인공 영식은 법관을 꿈꾸었으나,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를 갖게 되자 꿈을 포기하고 은강에 취직한다. 그렇게 12년이 지난 지금, 영식은 임원이 되었으며 두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바캉스’를 가기도 한다. 바캉스 장소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영식은 임원이 되고 체중이 줄 정도로 비관주의자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 그는 삼십에 황혼을 맞은 기분을 느끼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회사에 들어 온 젊은이들을 보며 겁을 내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가 정작 무서워한 것은 선배 세대를 보는 새 출발자들의 부정적 시선이 아니라 몇 년내 새 파란 그들이 어른들의 사는 방법,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터득하고 전철을 밟게 된다는 바로 그 점이었다.⁵⁴⁾

영식이 두려워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의 축적을 행복으로 여기게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시간여행』에서 신애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유이면서, 자기 성찰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기술의 진보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로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일치한다. 또 그 과정은 자연을 파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작가는 과학기술이 거주문화와 생태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 가령, 을숙도 하구둑 공사를 언급하며 난장이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을 강조하거나 공사로 사라진 지역에 거주하던 아이들을 떠올리기는 대목은 도시 건설과 생태의 관계

54) 위의 책, p.77.

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확인시켜준다.

조세희는 자본주의 생산체계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맥락에 주목하고, 또 폭로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물론 작가는 사진기의 셔터를 국가가 망각하고자 했던 대상을 향해 누른다. “민족인 우리가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 것, 학대하는 것, 막 두드려버리는 것, 그리고 어쩌다 지난 시절의 불행이 떠올라 몸서리치며 생각도 하기 싫은 것들을 다시 우리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즉 재소유”⁵⁵⁾시키기 위해 사진기를 든 것이다.

이처럼 조세희는 가난을 대상화하지 않고, 소외와 배제의 논리를 통해서 작동하는 경제의 원칙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다. 가난의 대상화가 경제, 그 자체만을 읽어낸다면 소외와 배제의 논리를 읽는 것은 경제를 인간 활동을 총체성과 연결짓는 행위이다⁵⁶⁾. 조세희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정치, 교육⁵⁷⁾, 기술, 과학, 생태 등의 개념은 총체성의 내포를 이루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각의 내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유동하는 주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조세희 작품의 현재성을 찾을 수 있다.⁵⁸⁾

55) 위의 책, p.136.

56) 피에르 레비, 김동윤 외 옮김, 『누스페어』, 생각의 나무, 2003, p.92.

57)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시작과 끝은 수학교사와 학생들의 대화이다. 조세희는 자본주의 국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서 학교 교육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령 “학교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을 자본으로 개발하려는 저의, 또는 결코 시대적인 사명을 깨우쳐 주지 않는다는 공격을 현대의 학교교육은 받고 있다. 현실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는 기능을 우리 교육은 담당할 뿐이라는 비판이 그 뒤를 따른다”(조세희, 앞의 책, 1985, p.136).

58) 이명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조세희의 소설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 중의 하나는 현장에 대한 밀도 높은 죄의식과 그것이 반대급부로 생성시킨 미학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정열을 제 몸의 고통으로 끌어안는 행위 전체. 그리하여 비통한 절망 속에서 써야 하고 또 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증언의 글쓰기야말로 저 압도적인 시간의 풍화작용과 침식작용 속에서도 나와 같은 비평가의 일식과도 같은 어두운 사유에 빛을 비추어주는 일을 추동했다는 점에서 온다. 이것이 30여

IV. 맺음말

조세희는 1960년대 후반 작가되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다. 이후 1970년대 후반 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목격하며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대학생들의 의식화에 큰 기여를 했지만, 1980년대에 발표한 『시간여행』과 『침묵의 뿌리』는 이전만큼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도 이러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조세희의 세 작품집을 살펴보았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시간여행』, 『침묵의 뿌리』는 난장이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서사이다. 1970년대 호모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탄생의 배경을 기본축으로 선과 악의 순환구조와 정동되기의 문제를 제기한다. 부동산 투기라는 금융자본의 축적 방식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작품집 전체의 배경이 된다.

경제와 과학기술의 문제가 세 작품집에 산포되어 하나의 계열을 이룬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피비우스의 띠」, 「클라인씨의 병」 등의 제목이 상징하듯, 조세희는 문학과 과학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근대문명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사고하는 것에 과학기술이 빠질 수 없다는 판단의 결과이며, 기술의 속도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이다. 기술의 속도가 인간의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뒤바뀌기도 한다. 작가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진기를 들고 사복사진 현장 사진을 찍어서 『침묵의 시간』을 발표한다. 낡은 기계인 사진기를 가지고 기술의 진보로부터 소외된 현장을 보여주며,

년의 세월 이편에서 윤리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행동주의를 다시금 결단하게 만드는 에로스वाद 같은 강렬한 혁명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명원, 「낙원구 행복동과 용산참사」, 『문화과학』, 2009년 봄호, p.278).

우리의 윤리적 감각을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발전적 과학화에 대항하여 성찰적 과학화의 가능성을 탐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현재 우리의 경제와 기술은 1970년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세희의 작품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경제적 주체로서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1970년대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여행』에서 보이는 신애의 변모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진보된 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공고하다. 난장이가 가고자 한 세계, 즉 사랑의 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계를 지향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것에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조세희가 세 작품집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과학 바깥의 과학이다. 기존의 과학이 자본과 결합하여 움직이는 세계라면, 바깥의 과학에서는 자본의 논리나 기술합리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 세계를 성찰적 과학의 세계로 명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 조세희의 작품이 던지는 물음이자 우리가 답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즉 조세희 문학은 자본주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성찰하고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상상해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17.

_____, 『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_____, 『침묵의 뿌리』, 열화당, 1985.

2. 논문 및 단행본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4.

권보드레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김춘규, 「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사회생태학적 담론에 관한 고찰」, 『한민족어문학』 제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613-639.

김태호 엮음, 『과학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 역사비평사, 2018.

권성우 외, 『침묵과 사랑-『난쏘공』 30주년 기념문집』, 이성과 힘, 2008.

박철수, 『아파트』, 마티, 2013.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가상계』, 갈무리, 2011.

_____, 『정동정치』, 갈무리, 2018.

서은주, 「노동(자)의 재현과 고통의 재소유-조세희 『침묵의 뿌리』에 담긴 '사복시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pp.283-311.

알랭 바디우, 조재룡 옮김, 『사랑예찬』, 길, 2011.

우찬제, 「분노와 사랑의 피비우스 환상곡, 혹은 분배의 경제시학」, 『작가세계』 제2집, 1990, pp.64-93.

유철상,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과학인식-조세희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8집, 한국현대문학회, 2005, pp.71-93.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2006.

이명원, 「낙원구 행복동과 용산참사」, 『문화과학』 제57호(2009년 봄호), 문화과학사, 2009, pp.275-289.

정주아, 「조세희 문학을 통해 본 1970년대 산업사회와 '희망'의 문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집, 한국근대문학회, 2018, pp.407-443.

크리스티안 마라제, 심성보 역,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갈무리, 2013.

피에르 레비, 김동윤 외 역, 『누스페어』, 생각의 나무, 2003.

한중수, 강희용, 『강남의 탄생』, 미지박스, 2018.

Abstract

The birth of Homo economicus and the problem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1970s

- Focused on Jho Se-Hee's works -

Choi, Byoung-goo

This study examines the birth of Homo economicus in “The small ball which a pygmy shot up (1978)”, “Time Travel (1983)” and “The Root of Silence (1985)”. “The small ball which a pygmy shot up” investigated how economic problems interfered with the circulation structure of good / evil in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 1970s. It is meaningful not to define the working class as the good and the capitalist class as the evil but to raise the problem of reflection and affection on the boundary of good / evil. This context is further elaborated through ‘Shin-Ae’ in “Time Travel”. On the other hand, Jho Se-Hee continuously reported his views on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literature, and also made it clear that he was uncomfortable with the speed of technology.

It was transformed to reality intervention through camera in “The Root of Silence”. The writer sought to intervene by shooting and sharing the scenery behind the speed using a camera which is a tool of technical civilization. In the process, it was a significant achievement that the economy and technology spread throughout culture including education, ecology, and politics.

Key word: Jho Se-Hee, 『The small ball which a pygmy shot up』, 『Time Travel』, 『The Root of Silence』, Science and technology, economic, Homo economicus

최병구

소속: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baius@gnu.ac.kr

이 논문은 2019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9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12월 12일 게재 확정됨.

